

# 도쿄 도 다마 지역의 생활개선운동에 대해

다치카와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지마 다카오

번역: 김 현정

## 들어가는 말

우리들이 ‘일상생활’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연’한 것이 언제 어떻게 일상화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성립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당연’한 일들의 기점이 된 것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생활개선활동이라는 시책이다. 본래 해당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 지역의 소여의 환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편,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한중일 세 나라에서 공명하듯 이루어진 생활개선 활동들은 현재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공유하고 있는 일들을 전국적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필자가 속한 생활개선/변화 연구회 그룹은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이 현재 ‘당연’하다고 여기는 의식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성과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에 관한 연구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어째서 생각하는가?: 일본 생활개선활동들의 역사적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생활개선활동들은 시책의 형태로 전국에 보급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계승해온 의식이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된 ‘생활개선’ 시책은 결코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즉, 시책에 대한 반발이나 대항과 같은 과도기적 기간을 거쳐 수용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은 오늘날 일상생활의 바탕이 된 생활상을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색하고자 한 활동이었으며 쇼와 30년대 경부터 전개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복선이 되기도 했다. 생활개선을 전제로 전개된 당시 농림성 등이 추진한 생활개선보급사업과 신생활운동협회가 주도한 신생활운동에 의한 활동들은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의 일상생활 형

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수용과정 등에 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급속히 전개된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일본 사회의 대전환 속에 매몰되어 민속학이나 역사학 등의 연구대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일본 사회의 대전환은 돌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이전의 사회적 기반을 유연히 분해해가는 과정이 존재했다. 이러한 분해와 창출 과정으로서 검증되어야 할 생활개선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과 대항 과정이야말로 지금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상생활에 이르는 모색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세조 대학 생활개선 제 활동 연구

위와 같은 연구를 민속학의 입장에서 시도한 것이 다나카 센이치가 펴낸 『생활 혁명: 전후 농촌의 생활개선운동과 신생활운동』이며, 역사학의 입장에서 시도한 것이 오카도 마사카즈가 펴낸 『신생활운동과 일본의 전후: 패전에서 1970년대』였다. 이 책들은 우연히도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되었는데, 생활개선운동들에 대한 검증 작업의 필요성이 민속학과 역사학에서 공유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이 두 권을 읽어보면, 같은 문제의식이 기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속학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책을 수용 혹은 대항한 사람들의 실천과 그에 대한 기억이었으나, 역사학에서는 주로 시책에 관한 기록을 분석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조사연구 대상지역의 경우, 전자는 주로 농산어촌, 후자는 도시라는 차이도 있어서 연구 성과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권의 책이 간행됨으로써 생활개선운동들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문헌은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각각의 관점 등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개선/변화 연구회는 전자의 관점과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 행정 쪽의 활동에도 주목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되었다.

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세조 대학에 재직했던 다나카 센이치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민속학 연구자와 농림성의 생활개선보급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이 협업한 성과물이다. 2004년부터 5년 동안 연구회를 통해 각지의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개가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렇게 출판물로서 소개된 이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의 현대 전시 구상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박물관 전시에서 생활개선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소개하는 효시가 되었다. 다나카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은 출판 이후 잠시 쉬게 되었으나, 우리 연구회에 참여했던 이와모토 미치야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일상학>로서의 민속학’ 구축을 향해: 한중일과 독일의 연구협업망 형성에 세조 대학 그룹도 생활변화/개선 연구회로서 참여하게 되어 다나카와 오카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지의 생활개선활동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하였다.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국적인 전개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발행해온 홍보지 등의 기사를 자료로 하여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회를 개최해왔다. 대상 지역은 다나카와 오카도의 연구 성과를 연결시킬 의도와 자료의 소재 확인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 대상을 다마 지구의 자치단체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요세 시, 고쿠분지 시, 쇼후 시이다. 또 전자의 연구대상으로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신생활운동협회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협회의 활동 기록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 3.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다치가와 시 스나가와에서의 인터뷰 사례

생활개선활동들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째서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두고 싶다. 필자 자신 또한 생활개선활동들에 관한 조사를 자치단체지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할 때 간헐적으로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 주로 사이타마 현 내 자치단체였는데 헤세 10년대 조사 시점에서 관련 자료들은 거의 폐기되어 있었고 생활개선활동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행정기관에 근무했던 분들도 정년퇴직하여 관계자들을 통한 자료 수집이나 인터뷰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개선활동들을 실천한 세대는 쇼와 10년대에서 20년대에 결혼적령기를 맞이한 세대였으며 다이쇼 시대에서 쇼와 시대 한 자릿수 세대에 해당되었다. 당시에 이 세대에 대한 인터뷰 조사는 어려워져 있었고 생활개선활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후에 제보자를 찾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다나카 쉐이치가 펴낸 『생활 혁명: 전후 농촌의 생활개선운동과 신생활운동』의 기술 내용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얻어진 것으로 제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일은 곤란하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작성은 관련 정부기관과 각 자치단체의 활동 전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생활개선활동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완료된 경우, 행정에서는 관련 문서를 폐기해 버리기 때문에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보관하는 당시 문서들을 자료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 대체 자료로 선택한 것이 각 자치단체가 발행한 홍보지였다. 헤세의 대합병을 앞두고 합병 대상인 자치단체에서는 시정촌지의 간행, 기념 홍보지를 간행하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은 비교적 입수하기 쉬웠다. 다만, 홍보지에 실린 기사이기 때문에 각 사업들의 예고나 보고와 같은 정보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각 자치단체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의의는 충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기적인 연구회 개최에 맞춰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배경을 연구회 멤버들의 조사 내용 보고와 토론 등을 통해 보필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작업과 함께 당시 활동들에 관여했던 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작업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연구 그룹 내에서 들려왔다. 이 즈음에 다치가와 시 스나가와 지구를 대상으로 생활개선운동을 조사하던 마스다 쇼코 씨로부터 청년 시절부터 청년단 활동을 통해 생활개선활동에 관여했던 도요이즈미 기이치 씨(쇼와 5년생)를 소개받아 간헐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스다 씨가 수집한 ‘쇼와 27년 스나가와무라 마을 청년단에 관한 모음 스나가와무라 마을 사무소 교육계’의 복사본에 따르면 도요이즈미 씨는 쇼와 27년에 총무부 서무, 쇼와 28년에 산업부장을 역임하고 쇼와 31년에 청년단장을 지냈다(쇼와 29년과 30년에도 연공서열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 미확인 상태이다).

도요이즈미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의외였다. 구 스나가와무라 마을에서 전개된 생활개선운동은 기요세 시, 고쿠분지 시, 초후 시 등의 대상 지역에서 보았던 전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다치가와 시 스나가와 지구는 근세 초기에 개발된 신전 집락으로 발농사를 통한 환금작물의 재배로 특화된 곳이었다. 구 스나가와무라 마을이 형성된 무사시노 대지 서부 지역은 고다마가와 강에 의해 퇴적된 자갈층 위쪽에 두꺼운 립층이 퇴적된 지형으로 투수성이 높고 보수성이 현저히 낮은 펄수 지대이다. 후발 신전 집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 마을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곳에 살던 선인들은 대소비지인 에도를 염두에 두고 야채 등을 주로 생산했으며 스나가와 지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환금작물의 재배가 이뤄졌다. 양잠이 성해지자 뽕나무 묘의 꺾꽂이 생산을 했고 양잠이 시들해지자 고구마 생산으로 전환했다. 지금은 고구마를 보존하기 위해 판 움막을 이용해 땅두릅을 활발히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두껍게 퇴적된 립층의 존재가 있었다. 스나가와

지구 주민들은 마을이 형성된 때부터 수전 경작에 의존하지 않는 환금작물의 재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다이쇼 11년에 개설된 육군비행 제5연대 비행장의 인근 지역에 관련 공장들이 건설되어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활동도 활발했다고 한다. 쇼와 30년경에는 이미 가옥이 재건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엌을 개선할 필요가 없었다. 또 같은 해에 시작된 다치가와 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지역을 이분하는 계획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었는데, 생활개선운동의 핵이었던 청년단과 부인회도 이 투쟁에 참여했다고 한다. 도요이즈미 씨는 이 시기에 청년단의 중추부에 있었다. 소비가 정착된 생활상과 다치가와 기지 확장 반대투쟁으로 인해 같은 다마 지구에 속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의 생활개선운동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도요이즈미 씨로부터 들은 스나가와 지구의 생활개선운동의 실태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주요 자료로 쓰였던 홍보지라는 기록물로부터는 파악할 수 없었던 지역 고유의 일상생활의 형태와 지역사회 내 생활개선활동들의 역할과 의의를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홍보지 등의 기사는 생활개선활동들에 관한 자치단체 측의 고지나 보고의 기록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수용과 대항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작업은 불가결하다. 도요이즈미 씨와의 만남은 그간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의 의의와 필요성을 재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개인의 생활사를 기초 자료로 하는 민속학의 시점을 간과해버릴 수도 있었던 데이터 입력 작업의 도달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 4. 생활개선활동 연구의 과제와 전망

올해부터 새로이 ‘생활변화/생활개선/생활세계의 민속학적 연구: 한중일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비교를 통해’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세조 대학에서 진행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동일본 지역의 사례에 편중되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이 서일본 지역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그 거점으로 후쿠오카 대학이 추가되었다.

또 생활개선활동들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필자 자신도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시도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고했거나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포기했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도요이즈미 씨와의 만남은 아직은 인터뷰 조사가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 데이터베이스화는 활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생활개선활동에 관여한 사람들과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검증받을 필요가 있음을 통감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수용하는 쪽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수용 방식은 달라진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초자료로 하는 민속학의 초지로 돌아가 일본 각지에서 전개된 생활개선활동들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밝혀가고자 한다.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개를 살펴봄에 있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이 활동들의 전제가 된 쇼와 22년 시행 민법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취지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족상에 대해서도 새로 제정된 일본국 헌법 24조에 명시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족의 이념형이 봉건적인 이에(집) 제도에서 혼인 가족 제도로 바뀌었다. 이 취지에 따라 메이지 민법의 가족법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었고 현행 가족법이 성립되었다. 여성이 남편 집으로 시집가는 기존 방식에서 혼인에 의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때까지 당연시되던 이에의

영속이라는 전제가 민법 개정을 통해 와해되어 갔으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젊은 세대가 생활개선 활동을 수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세대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의 중핵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실정 또한 제보자의 개인사나 가족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나가는 말

생활개선활동 데이터베이스 작성 작업은 전후 민법의 시행을 그 기점으로 삼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일상생활의 창출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본에서의 통시적인 전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동시대에 일본 주변에서 전개된 유사한 활동들을 검토하는 일의 의의도 확인되어 왔다. 2017년도 ‘생활변화/개선 연구회’ 제1회 연구회에서 가가야 마리 씨가 보고한 ‘오키나와의 생활개선보급사업의 전개와 수용’에서는 복귀 전의 류큐 농림성 지도 하에 실시된 생활개선보급사업에 하와이 대학 사업부 Genevieve Feagin 씨의 제언이 반영되었음이 시사되었다. 하와이 대학에는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키나와에서의 생활개선 보급사업의 전개를 분석함으로써 내지의 생활개선활동들의 기저에 있던 미국에 의한 일본의 민주화 정책의 시점 등도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성과로서 동아시아권의 생활변화/생활개선/생활세계의 형성과 변화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면 동시대적인 특징과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 고유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大門正克編, 『新生活運動と日本の戦後—敗戦から1970年代』, 日本経済評論社, 2012.  
 田中宣一編, 『暮らしの革命—戦後農村の生活改善運動と新生活運動』, 農山漁村文化協会, 2011.  
 豊泉喜一, 「砂川基地拡張反対闘争の光と影」, 立川民俗の会編, 『立川民俗』第19号, 2014.  
 宮崎光一, 「砂川における青年団活動」, 立川民俗の会編, 『立川民俗』第19号, 2014.

